

## The Effects of Disaster Damage on Social Discontent

- Validating the throttling Effect of National Service Support -

Min Soo Kim<sup>#</sup>, Yong Ho Lee<sup>+</sup>, Byeong Gyu Ba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usan National University, 2 63road busnadaehak-ro, Guemjeong-gu, Bus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disaster damage on social discontent and to verify the adjustment effect of national service support on i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trategies for alleviating social discontent of disaster victims. The 2017 panel for tracking changes in the lives of disaster victim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Disaster and Safety in Korea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and the data from a total of 1,452 individual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all types of disaster damages, economic damag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discontent. Second, psychological damage wa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discontent. Third, national service support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adjustment effect o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amage and social discon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the national service support in Korea has not been efficiently performed in a way to reduce psychological damage and social dissatisfaction of disaster victi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each victim of psychological damage in order to provide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national service support.

**Key words:** disaster damage, disaster victim, social dissatisfaction, national service support

### 1. 서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지진 및 2017년 포항지진과 같이 재난으로 인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재난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비롯하여 우울, 불안, 갈등, 공포 등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된다(Lim, 2016).

이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난피해를 단·장기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서비스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피해 지원 서비스 매뉴얼에는 ‘자연재해복구’, ‘사회재난복구’,

<sup>#</sup> The 1st author: Min Soo Kim, Tel. +82-0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jinjuminsu@hanmail.net

<sup>+</sup> Corresponding author: Yong Ho Lee, Tel. +82-051-510-1559, e-mail. ddldydzh1@naver.com

‘응급복구’, ‘재난구호’ 등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재난피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재난피해자들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및 매뉴얼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 재난피해 지원서비스 매뉴얼에 제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역할이 현실성이 낮다는 점(Lee, et. al., 2015), 재난이 유형별로 구분되어 상이한 복구지원정책이 제시되어 통합적이지 못한 점(Ha, 2017) 등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부의 복구지원정책 및 재난피해 지원서비스 매뉴얼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복구지원정책에 대한 한계는 결국 재난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위에서 언급한 재난피해자들의 재난피해는 단순히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유관기관 등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재난 발생 이후 시의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난피해가 개인적인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으로까지 확산되며, 더 나아가 개인과 지역사회 및 정부 간 신뢰가 약화되어 결국에는 불안정한 사회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재난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는 점과 재난피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재난피해자를 위한 복구지원정책을 개편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들이 경험한 재난피해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이와 같은 재난피해가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적 불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난피해자의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재난피해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재난 피해 이후 개인과 지역사회의 대응 및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난피해의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그 특성이 대형화 및 복잡화되어 가고 있음과 동시에 재난의 개념 또한 재난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세월호 참사 등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에서 벗어나 사회적 특성을 가진 재난으로 변화되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단순히 태풍, 호우, 지진 등과 같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특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사고의 개념까지도 재난으로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만큼 재난피해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재난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은 가시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피해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의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의 수준은 다차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재난 발생 이후 언론을 통해 가장 먼저 조명되고 재난피해 규모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피해’이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2017)에 따르면, 재난 발생 이후 투입되는 피해복구 금액은 평균 피해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순히 재난 피해 당시의 피해금액만으로 재난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복구 금액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재난피해자들에게 있어 경제적 지원은 복구과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난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 중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비해 잠복기간이나 피해가 드러나는 기간이 길어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경제적 피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들은 타박상, 골절, 뇌진탕 등 갖가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과잉 각성, 정서적 둔감, 회피, 해리반응 등처럼 심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이전의 익숙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져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고(Kauffman, 2002), 이로 인해 알코올 및 약물에 중독되어 정신병리 현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NEMA, 2008).

이처럼 재난피해자들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들이 다시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기술이 저하되거나 문제해결 능력이 상실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Bae, *et. al.*, 2015). 재난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재난피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 간 관계, 주민과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민간 및 공공기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자가 가지는 욕구와 필요한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들이 중첩되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Kim, *et. al.*, 2017).

## 2.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

재난피해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입게 된 재난피해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은 지역사회 및 정부와의 신뢰관계, 통합, 결속 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재난 발생 이후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들 각각은 상호 협력하여 재난피해를 복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복구과정에서 상호 간 갈등 또한 발생하게 된다. 재난피해로 인한 갈등의 발생은 정부와 재난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 간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문제로 세분화된다(Kim, *et. al.*, 2017). 또한 재난 발생 이후, 집단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Kim, *et. al.*, 2018; Kim & Kang, 2018),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Park & Sim, 2015; Kang, 2016; No, 2018).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단계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단계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게 된다(Hong & Ku, 2009).

이처럼 재난 발생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재난피해 지역의 복구과정이 장기화되어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된다(Kim, 2010).

## 3. 재난 이후 정부의 서비스 지원과 사회적 불만

기본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은 ‘예방단계(Prevention)’, ‘대비단계(Preparedness)’, ‘대응단계(Response)’, ‘복구단계(Recovery)’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재난관리 과정은 현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등의 공식기관에서 정형화되어 활용되고 있다(Kim, 2018). 하지만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재난을 최대한 대비한다 할지라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Choi, 2006). 그렇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대응과 복구단계에서의 재난관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들을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정부의 서비스 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행정안전부(2018)에서는 재난피해자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정책, 서비스와 같은 재난지원체계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체계는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서비스 누락 및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Yoon, et. al., 2016), 재난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경제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Choi, 2006), 그리고 최근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심리적 지원이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 Kang, 2015).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난지원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체계와 서비스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난피해자들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 외에 지역사회 및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1차 피해신고 접수기준과 2차 피해신고 접수기준이 달라 재난피해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한 사례에 대한 연구(Lim & Jung, 2018),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배분과정에 있어 적합한 기준이 없어

재난피해자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적 박탈감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Yang & Lee, 2010) 등과 같이 재난상황에서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서비스 지원은 지역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재난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서비스 지원이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는 ‘사회적 불만’, 그리고 조절변수는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지원’으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의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 수준이 높을 것이다.

- 경제적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신체적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 수준이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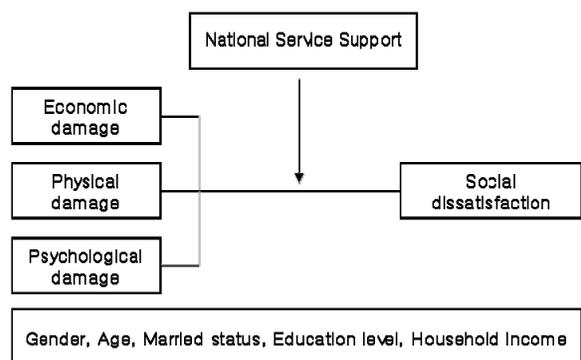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 심리적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 수준이 높을 것이다.

② 국가의 서비스 지원은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완화효과를 가질 것이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17년 2차 본 조사를 통해 수행한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연구에서 생성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데이터는 재난피해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재난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자 1,659명을 대상으로 재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대상자 중 연구모형에 반영된 주요변인에 대해 결측값을 제외한 1,452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1) 독립변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들의 피해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들의 피해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우선 ‘경제적 피해’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들이 입게 된 재난피해 금액이 아닌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복구 비용을 합산하여 log 처리한 후 경제적 피해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신체적 피해’의 경우, 재난 발생 이후 1년 동안 발병한 신체질병 유무를 더미 처리한 후 합산하여 도출된 값을 신체적 피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재난피해를 경험한 직후 1년 동안의 신체질병의 발생여부이므로 재난으로 인한 질병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질병발생 횟수가 많을수록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피해’의 경우,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들이 겪게 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에서 사용된 ‘IES-R’ 척도(22문항)를 사용하였고 이를 평균한 값을 심리적 피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 2) 종속변수: 사회적 불만

본 연구에서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적 불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본 데이터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만’ 척도이다. 해당 척도는 Krzysztof(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재난피해자들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결속의 결핍과 관련한 내용들을 수정한 것이다. 각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경험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유대감 및 단결심, 피해자들 간 분열, 적개심 및 괴로움, 그리고 재난피해자들 간 우호적인 관계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척도의 문항은 리커트 척도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만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01로 나타났다.

### 3) 조절변수: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지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조절변수로는 재난 발생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들에게 지원된 서비스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척도를 설정하였다. 본 척도는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상담’, ‘환경 및 시설복구’의 네 가지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리커트 척도 5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0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인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최종학력, 월 평균 소득과 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참여 수준과 사회적응 수준을 추가하여 통제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더미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연령대는 ‘13-18세=1’, ‘19-29세=2’, ‘30-39세=3’, ‘40-49세=4’, ‘50-59세=5’, ‘60-69세=6’, ‘70세 이

상=7'로 코딩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을 기준변수로 하여 '기혼=1', '기혼 외=0'으로 더미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최종학력은 '초등 이하=1', '초졸=2', '중졸=3', '고졸=4', '대학 이상=5'로 코딩 변경하여 투입하였다. 월 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200-300만원 미만=3', '300-400만원 미만=4', '400-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으로 코딩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참여도는 총 4문항(리커트 척도 1-5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적응은 총 5 문항(리커트 척도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 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1,452명을 분

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이 709명(48.8%), 여성이 743명(51.2%)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70세 이상(28.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69세(24.9%), 50-59세(19.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기혼이 983명(67.7%), 기혼 외가 469명(32.3%)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37.5%)이 가장 많았으며 초졸(18.6%), 중졸(17.8%), 대학 이상(13.8%), 초졸 이하(12.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 평균의 경우, 100만원 미만(21.8%)이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21.1%), 100-200만원 미만(21.0%), 300-400만원 미만(19.7%) 순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 성별, 가구형태, 결혼상태는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독립변수 중 신체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만

Table 1. General details

(N=1,452)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709	48.8
	Female	743	51.2
Age	13-18	41	2.8
	19-29	109	7.5
	30-39	83	5.7
	40-49	162	11.1
	50-59	279	19.2
	60-69	361	24.9
	More than 70	417	28.8
Furniture Type	One-person Households	175	12.1
	Other than One-person Households	1277	87.9
Marital Status	Married	983	67.7
	Married Others(Unmarried, Bereaved, etc)	469	32.3
Highest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177	12.2
	Elementary School	270	18.6
	Middle School	259	17.8
	High School	545	37.5
	Above University	201	13.8
Household Income Average	Less than 1 million won	317	21.8
	More than 1 million won - Less than 2 million won	305	21.0
	More than 2 million won - Less than 3 million won	307	21.1
	More than 3 million won - Less than 4 million won	284	19.6
	More than 4 million won - Less than 5 million won	116	8.0
	More than 5 million won	123	8.5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measurement tool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	-.073**	-.082**	.056*	.242**	.061*	.051	-.096**	.018	-.096**	-.111**	-.026	.016
②		1	.150**	.320**	-.570**	-.367**	-.176**	.206**	.009	.495**	.163**	-.005	.021
③			1	-.482**	-.139**	-.324**	-.041	.126**	-.113**	.106**	.113**	.006	-.022
④				1	-.020	.074**	-.014	-.025	.101**	.118**	.056*	-.027	.066*
⑤					1	.397**	.199**	-.221**	.068**	-.451**	-.060*	-.039	.031
⑥						1	.169**	-.219**	.077**	-.352**	-.220**	.112**	.068**
⑦							1	-.230**	-.047	-.218**	-.120**	.100**	.118**
⑧								1	.044	.258**	.532**	-.165**	.109**
⑨									1	.021	.069**	-.111**	.167**
⑩										1	.243**	-.085**	-.012
⑪											1	-.229**	.097**
⑫												1	-.002
⑬													1

\* p < .05, \*\* p < .01, \*\*\* p < .001

① Gender, ② Age, ③ Furniture Type, ④ Marital status, ⑤ Education Level, ⑥ Household Income, ⑦ Social Participation  
 ⑧ Social Adaptation, ⑨ Economic Damage, ⑩ Physical Damage, ⑪ Psychological Damage, ⑫ National Service Support  
 ⑬ Social Dissatisfaction

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불만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p<.05), 조절변수인 국가의 서비스 지원은 사회적 불만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 간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재난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와 경제적 피해(A), 신체적 피해(B), 심리적 피해(C)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조절변수인 국가 서비스 지원(D)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피해(A), 신체적 피해(B), 심리적 피해(C)와 조절변수인 국가 서비스 지원(D)에 대한 각각의 상호작용항(A×D, B×D, C×D)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Model 1>은 사회적 불만에 있어 전체 분산의 9.2%(R<sup>2</sup>=.0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del 1에서 투입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통제변수 중에서는 재난피해자 중 기혼일수록, 재난 피해 이후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재난 피해 이후 사회적응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중에서는 경제적 피해(A)와 심리적 피해(C)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Model 2는 사회적 불만에 있어 전체 분산의 9.2%(R<sup>2</sup>=.092)를 설명하였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변수들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Model 3은 사회적 불만에 있어 전체 분산의 10.6%(R<sup>2</sup>=.106)를 설명하였다. Model 3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3에서도 Model 1, 2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통제변수인 결혼상태, 사회참여도, 사회적응도, 그리고 독립변수인 경제적 상태(A)와 심리적 상태(C)가 사회적 불만에 동일한 방향으로 유

Table 3. Analysis of the throttling effect of national service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damage and social discontent

Variable		Model I			Model II			Model III		
		<i>B</i>	<i>s.e</i>	<i>t</i>	<i>B</i>	<i>s.e</i>	<i>t</i>	<i>B</i>	<i>s.e</i>	<i>t</i>
Control	Age	.029	.015	.698	.010	.015	.683	.005	.015	.361
	Gender	.039	.034	1.292	.045	.034	1.312	.045	.034	1.318
	Education Level	.039	.019	.999	.019	.019	1.026	.015	.019	.806
	Household Income	.042	.011	1.266	.014	.011	1.224	.016	.011	1.413
	Furniture Type	.034	.069	.955	.066	.069	.949	.067	.069	.966
	Marital Status	.081	.047	2.182*	.104	.047	2.196*	.114	.047	2.421*
	Social Participation	.201	.038	5.223***	.200	.039	5.177***	.179	.039	4.645***
	Social Adaptation	-.098	.023	-4.198***	-.099	.023	-4.208***	-.101	.023	-4.323***
Independent	Economic Damage(A)	.054	.010	5.275***	.054	.010	5.291***	.052	.010	5.122***
	Physical Damage(B)	-.022	.040	-.555	-.022	.040	-.542	-.029	.040	-.717
	Psychological Damage(C)	.066	.027	2.497*	.068	.027	2.533*	.092	.027	3.363**
Moderation	National Service Support(D)				.010	.024	.437	.022	.024	.912
	A X D							.015	.014	1.097
	B X D							.036	.048	.758
	C X D							.112	.032	3.482**
<i>R</i> <sup>2</sup>		.092			.092			.106		
<i>F</i>		10.230***			9.386***			8.765***		

\*  $p < .05$ , \*\*  $p < .01$ , \*\*\*  $p < .001$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심리적 피해와 국가 서비스 지원 간의 상호작용항(C×D)만이 사회적 불만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피해 유형 중 심리적 피해가 사회적 불만과의 관계에서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국가의 서비스 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Model 2와 Model 3 간 설명력( $R^2$ )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lken & West(1991)가 제안한 단순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를 살펴보면,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불만 간의 관계에서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높고 낮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정적인 방향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불만의 수준이 더 크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피해가 낮은 피해자보다 심리적 피해가 높은 피해자에게 있어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사회적 불만에 한층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연구결과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경주(2016) 및 포항(2017) 지진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자연재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2007), 세월호 참사(2014),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2014) 등과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재난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들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측면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장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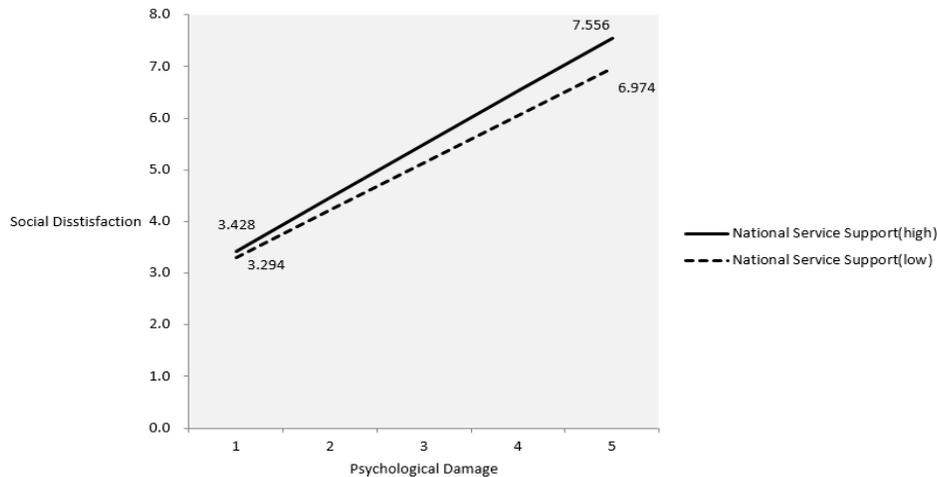


Figure 2. Simple slope analysis of moderation effect of national service support

인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피해자들의 피해수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피해자들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지역사회 갈등 및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피해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재난피해와 사회적 불만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일반적 특성, 재난피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관계, 그리고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자가 기혼인 상태일 때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재난 피해 이후 복구과정에 있어 가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피해자들과의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체인양, 참사원인 규명 등과 관련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Kang(2016)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서비스 및 물품지원에 대한 배분과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분배될 경우, 재난피해자들 간 갈등,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Yang,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서비스 및 물품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이웃 과 갈등이 심화 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재난피해자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사회적 불만이 낮아지고 사회적응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불만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재난 발생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또는 이해관계가 동일한 주민들 간 공통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국가에게 피해와 관련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이처럼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국가에게 지원 및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들을 사회참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참여를 통해 상호 간 문제

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하고 상호신뢰가 깨지게 되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Hong & Ku(2009); Park & Sim(2015);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가해자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사회참여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상호간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가 깨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응은 주어진 상황 또는 환경에 잘 어울리거나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재난피해자가 재난 피해 이후 맞닥뜨리는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won, 2018; Jun & Oh, 2017)와 장애인의 사회적응 수준이 삶의 질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는 재난피해자들이 재난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 피해 이후 초래되는 사회적 불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셋째, 재난피해 차원에서 신체적 피해의 경우 사회적 불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를 많이 입을수록 사회적 불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난 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개인의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전 진도군은 관광지로서 매년 방문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사 이후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won, 2018). 이는 재난피해자와 함께 2, 3차 피해자들 또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 이후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재난이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확산되었다. 이러한 심리적 피해는 신체적 후

유증보다 10배 높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초기에 심리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난피해자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침과 동시에 심리적 피해가 만성화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재난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초기대응이 매우 미숙하여 재난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한다(Lim, 2016).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리적 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기술통기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피해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피해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국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회적 불만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의 심리지원서비스가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하였던 민간 잠수사의 심리치료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심리지원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Lim(201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피해자 또는 재난피해 유가족들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의 서비스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배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재난피해자들의 주거피해와 관련한 지원제도인 ‘소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난피해자들이 주택피해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Lim &

Jung, 2018). 또한 재해의연금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투명성, 우선순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Yang & Lee, 2010)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재난은 개인의 힘으로 견뎌내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책임소재의 규명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와 국가에게 요구하기 위해 주민들 간 협력을 한 사례(Park & Sim, 2015)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례(Lim, 2016), 재난관리과정에서 재난피해자들에게 지자체의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야기한 사례(Kim, 2018)처럼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조직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상호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난피해로 인한 복구과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심리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지원의 경우, 자칫 잘못된 심리적 개입은 재난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다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Lim, 2016). 본 연구의 단순기울기분석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서비스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 불만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심리지원서비스가 재난피해자들에게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가차원의 심리적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들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진 재난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재난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회복시키는 점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이라는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예방과 대응단계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또한 재난피해자들의 피해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로 이어짐을 증명하여 재난복구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난피해의 범주를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 한정시킨 점과 각각의 재난피해를 더욱 심도 있게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재난피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질적 연구와 병행함과 동시에 재난피해를 세분화하는 데 있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e, Jung Yee, Hee Hyun Kim, Hyun Joo Park, Hwa Ryeong Shin, Hee Jeong Hong, and Hae Sook Sohn. 2015. A Study on Floor Disaster Experience Analysis for Psychological Support Strategy Development. *Korean Review of Crisis*. 11(9): 23-45.
- Baron, R. M.,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hoi, N. H. 2006. Post-disaster Support: Disaster Victim's Return to Society. *Korean Review of Crisis*. 2(2): 1-18.
- Ha, K. M. 2017. A Study on Local Emergency Management: The Case of Bus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1(3): 71-87.
- Hong, Deok Hwa and Do Wan Ku. 2009. A Study on Social Conflicts by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s and Disorganization of Local Community. *ECO*.

- 13(1): 7-47.
- Jun, Li Sang and Hwei Jong Oh. 2017.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n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3): 275-296.
- Kang, H. C. 2016. An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Sewol Ferry Disaster through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GRI Review*. 18(2): 127-152.
- Kauffman, Jeffrey. 2002. *Loss of the Assumptive World: A Theory of Traumatic Loss*. N. Y.: Brunner-Routledge.
- Kim, B. D. 2014.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oci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ies. Doctor's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 Kim, D. K. 2010. Conflicts with Fishing Village Residents Caused by Environmental Disaster and Social Capital: focused on Hebei Spirit Vessel Oil Spill Accident. *ECO*. 14(1): 125-165.
- Kim, M. J. 2018.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nflict in Disaster Management. Docto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Min Jung and Sung Cheol Kang.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 Difference among Stakeholder about Disaster Welfare Policy: Focused on the Case of CHABA in Ulsan City.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9(1): 233-255.
- Kim, Min Jung, Woo Jung Choi, and Seong Won Choi. 2017. A Study of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Stereotyping with Respect to Disaster Conflict Management. *Dankook Law Review*. 41(2): 55-77.
- Kim, Min Jung, Woo Jung Choi, and Sung Cheol Kang. 2018. A Study on Cause Analysis and Management Policy of Disaster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2(1): 399-418.
- Krzysztof. 2012. Predicting Social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rauma: The Role of Postdisaster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Trauma*. 4(1): 22-23.
- Kwon, H. J. 2018. The Influence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Education in Social Adaptation and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Kwon, S. A. 2018. A Study on Local Economic Resilience after Disasters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Focusing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5): 456-463.
- Lee, Dong Hun and Suk Hyun Kang. 2015.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and Crisis Counseling Program in the U.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513-536.
- Lee, Na bin, Ki Sun Sim, Sang Woo Hahn, Kang Uk Lee, Min Young Sim, Jeong Ho Chae, and Hyun Nie Ahn. 2015.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Reports of Mental Health Service Providers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n Korea.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3(4): 116-144.
- Lim, Dong Hyun and Beom Ji Jung. 2018. National Disaster Support System and Moral Harm: Building 'Sophage' Support Regulations. *The Summer Congres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 Lim, J. S. 2016. Disaster and Psychological Trauma: Focused on Sewolho.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10(1): 65-95.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7. *Yearbook of Disaster*.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8. Manual for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 No, J. M. 2018. The Effect of Community Conflict on Social Capital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 Grounded Theory Approach.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Park, Sang Kyu and Mun Bo Sim. 2015. The Study on Management Methods and Conflict Aspect of Interest Groups in Disaster Area: Focus on the Oil Spill Incident at Taean.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17(1): 79-106.
-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A Study on the System of Support for Psychological Management of Disaster Victims*.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Yang, KI Geun and Eun Ae Lee. 2010. A Study on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Korean Review of Crisis*. 6(2): 181-197.
- Yoon, Seo Yeong, Ho Kyeong Yoon, So Yeon Lee, and Myung Hun Ko. 2016. A Study for Link of Institution in Disaster Management. *Korean Psychosomatic Society*. 24(2): 125-132.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현철. 2016.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 갈등과정 분석. GRI 연구논총. 18(2): 127-152.
- 권설아. 2018. 시계열자료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 이후 지역경제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5): 456-463.
- 권향자. 2018. 여성의 사회교육 참여 동기가 사회적응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도균. 2010. 환경재난에 의한 어촌마을의 주민갈등과 사회자본.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25-165.
- 김민정, 강성철. 2018. 재난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태풍 차바(CHABA)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9(1): 233-255.
- 김민정, 최우정, 강성철. 2018. 재난갈등의 원인분석 및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2(1): 399-418.
- 김민정, 최우정, 최승원. 2017. 재난갈등 유형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1(2): 55-77.
- 김민정. 2018. 재난관리과정의 갈등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봉덕. 2014.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및 삶의 질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 노정민. 2018.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의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상규, 심문보. 2015. 대형 재난지역의 이해집단 간 갈등양상 및 관리방안 연구: 대안의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1): 79-106.
- 배정미, 김희연, 박현주, 신화령, 송희정, 손래숙. 2015. 재난심리지원 전략 개발을 위한 홍수피해자의 경험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1(9): 23-45.
- 소방방재청. 2008.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양기근, 이은애. 2010.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81-197.
- 윤서영, 윤호경, 김소연, 고영훈. 2016. 재난지원에 있어 지역사회 기관 연계에 관한 연구. 정신체의학. 24(2): 125-132.
- 이나빈, 심기선, 한상우, 이강욱, 심민영, 채정호, 안현의. 2015. 세월호 참사 후 재난심리지원 실무자들의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재난심리지원체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4): 116-144.
- 이동훈, 강현숙. 2015. 미국의 재난심리지원 체계 및 재난위기상담의 실제와 시사점. 상담학연구. 16(3): 513-536.
- 임동현, 정지범. 2018.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와 도덕적 해이: 건축물 '소파'지원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 임정선. 2016. 재난과 심리적 외상: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입법정책. 10(1): 65-95.
- 전리상, 오종희. 201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275-296.
-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18.
- 하규만. 2017. 지방의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3): 71-87.
- 행정안전부. 2017. 재해연보.
- 행정안전부. 2018.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안).
- 홍덕화, 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7-47.

---

Received: Sep. 27, 2019 / Revised: Nov. 21, 2019 / Accepted: Nov. 27, 2019

## 재난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피해가 사회적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서비스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구축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패널 2차년도(2017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총 1,4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의 유형 중 경제적 피해는 사회적 불만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피해 역시 사회적 불만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가 서비스 지원은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불만의 관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불만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국가 서비스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개개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주제어 : 재난피해, 재난피해자, 사회적 불만, 국가 서비스 지원

Profiles **Min Soo Kim** : He received h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a doctoral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is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Basic income, youth, Disaster Vulnerable People(jinjuminsu@hanmail.net).

**Yong Ho Lee** : He received his a corresponding author. 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the master's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is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youth, labor and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ddldydzh1@naver.com).

**Byeong Gyu Bae** : He received h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the master's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is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qudrb3689@hanmail.net).